

불자 세상보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 연구소장

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회는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각종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지만 정부 자문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예외 없이 문화재정책 결정과 행정집행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화재위원회에 선정되는 것은 문화재계에서 최고수준의 명예를 달성하기 때문에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화재위원에 선정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실력 및 인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행태가 정치권과 권력층에 줄 대기가 있으며, 한국 학계의 병폐인 학맥의 입김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임된 문화재위원이 역사와 문화재의 가치를 공평정당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금

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존 문화재위원회는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관련 학설이나 분석분야에서 문화재전문가들이 오히려 자신의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학맥에 연결되어 있는 후학 위원들은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며, 다른 학파는 무시하기에 이르다.

특히 정치권력이 교체되면서 문화재의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를 문화재위원회에 선임하기도 했다. 이 점은 참여정부 때도 있었는데,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올해 4월 25일에 새로운 문화재위원이 선임된다. 문화재청은 400군데 기관에 위원 후보를 추천하라고 했었다. 그러나 문화재정책에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시민단체나 연구소에는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결국 생색내기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다. 2009년에도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했거나 시민단체와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회에 선임되지 못했다. 2009년의 경우 일부 문화재분과는 정치권력과 밀접한 교수 세 네 명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위원을 선정했다는 사실이 추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 한 교수는 권력의 지시에 의해 문화재위원을 선임했고, 또 다른 교수는 자신의 학맥과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자신에게 반대되는 논리를 전개한 학파와 전문가를 위원에서 빼버렸다.

또, 다른 행태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면서 문화재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8조 2항의 3을 보면 인류학·사화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인문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규정돼 있지만, 2009년에 선임된 언론·법조·종교·경제계 등에서 선임된 인사들이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공무원 비율이 높았다는 문제도 있다. 즉 문화재청의 국장과 소속 기관장이 문화재위원에 있었으며 정부기관인 국립박물관 임원들 다수가 문화재위원들로 포진해 있다.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정부의 개발사업에 반대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며, 문화재위원회는

국립박물관의 “지방박물관장 회의 또는 부장회의”는 아니다.

또한 문화재청 공무원과 업체와 연결된 인사는 제외하겠다고 해놓고는 문화재청 출신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 특정 학맥만의 주장이 득세했다. 또한 현장을 모르면서 폐허화문화만 정통이라 여기는 특정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 문화재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한국은 전문가의 나라이다. 아니 전문가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학문이나 이론의 진정성보다 당장의 화려한 꽃과 열매만을 추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최광희호 아니 이명박호 제2기 문화재위원들의 선임 과정과 결과를 살피는 두 눈과 심장으로 주시하고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호국연우사' 신축불사 후원계좌

계입은행 325-20-221949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국민은행 477401-01-179603(예금주: 군종특별교구) ARS 060-700-0108 (전화 한 통에 5000원)

사부대중 칼럼



이명근 미디어84000 대표

거의 25년쯤 전의 기억으로 대구 모 사찰에서의 일이다. 서울 S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겨울수련회를 위해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주지스님은 침구를 반드시 자참하고 온다는 조건을 달아 수락하셨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열기왕성한 학생들은 '예' 하고 스님의 조건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고는 막상 예정된 날짜에 절을 찾았을 때 제대로 침구를 갖춘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스님은 비박같이 화를 내며 대중스님들에게 아무도 아이들에게 이부자리를 내주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단은 그 이튿날 낫다. 구둣발이 두꺼워 한 이들은 연신 장작을 때대야 온기가 비치는 대중방에서 말뚫한 처녀들이 오돌오돌 떨며 하룻밤을 보낸 것을 안 주지스님은 이번에는 대중스님들

을 모아놓고 크게 나무라셨다.

“이놈들아, 네놈들이 사람이냐? 내가 이부자리를 내주지 말라고 했어도 알아서 내줬어야지, 네놈들은 따뜻하게 자면서 재들 주을 줄 몰랐단 말이나?”

사실 그 절에서는 누가 와서 묵고 가든 늘 새로 뻥 출정을 씌운 이부자리를 내어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몇 안 되는 대중스님들의 고역을 염려해서 침구를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이다. 아무튼 그날 대중스님들은 주지스님으로부터 단단히 혼을 खा다 고 한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노장스님들을 시봉하는 젊은 스님들 중에는 모시는 스님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다. 다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것이 노스님들의 특징이어서, 심지어는 상을 차리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의 위치만 바뀌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프란시스코 루키라는 미국학자가 쓴 《Hwa Yen Buddhism(화엄불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일본 불교계에서의 이런 일화가 나온다.

노장스님의 변덕

사미스님이 설거지를 하다가 열몇 젓가락 하나를 개수통에 흘려버렸는데, 나중에 수체에서 그것을 발견한 노스님이 사미스님을 불러 물었다. “이것이 쓸 수 있는 것이냐? 쓸 수 없는 것이냐?”

그리고는 ‘내가 이 젓가락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나 진배없다’ 식의 꾸중을 서너 시간에 걸쳐 들었는데, 그때 그 사미스님의 나이가 일곱살밖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상좌 길들이기에 인정사정없는 것은 일본 스님이나 우리나라 스님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모질도 모진 노스님들이 신도들에게는 인자하고 자상하기가 부처님 가운뎃도 모자람으로 받아들이는다는 사실이다.

노스님을 잘 모시는 보살님들 가운데는 ‘노스님이 마치 친정아버지 같아서’라는 이유를 대는 이가 제법 많다. 말하자면 오랜 수행의 결과가 덕화(德化)로서 자연스레 신도들에게 발현된 것인데, 실제 노스님의 지중구에 숨이 막혀 ‘저 노장 뉘네지나’ 하면서 마지못해 시봉하던 젊은 스님들도 그렇게 10년, 20년을 같이 살다

보면 어느새 스승님 못지않은 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 우리 불가(佛家)의 자연스런 문화였다. 소중함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먼저 이 이야기들을 떠올린 것은 우리 불교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 맞은 부분 세속화돼가고 있음에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을 잔뜩 들여 절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랴. 그 안에서 빛어지는 인간관계가 여법(如法)하지 못하다면.

요즘 학생들이 연속 자살을 하면서 KAIST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유는 다른 것 같지만 최근에는 교수도 한 사람 자살을 선택했다고 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그런데 이유를 따져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데는 일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인내도 되던 등록금을 내게 하고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강의를 영어로만 진행하게 한 현 총장의 학내 개혁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승자독식으로 사회양분화가 심해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학생마저 무한경쟁으로 내몬 당시자는 교육자라 할 수 없다. 그저 사육사일 뿐이다.

社說

실질적 지원 따라야 불교학이 바로 선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이 주요 추진과제로 21세기 통합대장경 아카이브 사업을 내놓았다. 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불교기록문화유산 집대성하는 가치 21세기판 경전 결집이라 불릴만한 대작불사이다.

동국대는 삼보정재로 건립된 종합대학으로 건학 100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그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다하지 못했다. 당장 불교학 분야가 그랬다. 해화전문학교 시절부터 동국대로 바뀐 즈음이 한국불교학이 태동하던 여명기였다면 지금의 동국대 불교학은 침체기라 불릴 만하다.

이는 저조한 외부 프로젝트 수주로도 드러난다.

인재관리도 엉망이었다. 불교학 박사학위자 30여 명이 이상이 중증신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위태로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인환 스님은 4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동국대가 불교학 중심이 되겠다는데, 이는 현재 동국대가 불교학의 중심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스님은 “동국대는 과거부터 시작해 지금도 불교학의 중심에 있다”며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에 예도 그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다하지 못했다. 당장 불교학 분야가 그랬다. 해화전문학교 시절부터 동국대로 바뀐 즈음이 한국불교학이 태동하던 여명기였다면 지금의 동국대 불교학은 침체기라 불릴 만하다.”

인환 스님의 비유가 재치 있는 기관장의 위기모면용 멘트가 아니라 촌철살인하는 선사다운 현답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동국대 김희옥 총장 취임과 제2대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에게 불교계의 전문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4대강 유역에 있을 문화재도 살펴야

낙단보 마애불을 둘러싼 한바탕 소동이 문화재청의 불교계 요구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문화재청 등에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던 조계종은 낙단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4대강 개발 사업 구간에서 제2 제3의 마애불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낙단보에서 문화재가 발견됐다면 다른 사업 구간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낙단보 마애불 천공훼손을 경험한 불교계라면 4대강 사업 전역의 문화재 발굴·보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계종이 4대강 유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성보에는 눈을 감은 채 낙단보 마애불에만 집착하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리(문화

재)를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현실과 타협한 것은 출가자다운 자세가 아니다.

문화재청이 불교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낙단보 마애불이 보존되지 않는다. CCTV를 설치해도 4대강 개발에 대한 정부 지지를 꺾지 못하면 마애불은 언제고 훼손될 위험에 처해있다. 낙단보 마애불이 여기서 더 훼손된다면 이는 성보문화재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조계종과 문화재청간 반목, 불자·국민과 국가기관과의 불신은 각각의 부문에서 분노로 불충자를 끌어 낼 더 큰 재앙 아닌가. 하물며 제2 제3의 낙단보 마애불이 나중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다음은 어찌할텐가. 조계종의 용단을 기다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판부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보도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소형출판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셨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공리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공해몽법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 통증
신제품 MSM Glucosid & Omega3 Cream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글로벌케어는 관절염과 관련된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팔꿈치, 어깨, 목, 허리, 손목 등 통증이 발생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을 꿰뚫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백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팔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룰 수가 통증이 싹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어깨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 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답니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습니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낍니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사용하신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50,000원
금剛齋/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